

발행인 | 이병호 편집 |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제 1795호
주소 | 560-912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0-6 전화 | (063)285-0041 팩스 | (063)283-9365 http://j catholic.or.kr E-mail | catholic14@hanmail.net

강론 ...

‘행복’에 부리를 담그며



김희태 신부
(도통동 주임)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불행은 이야기한다. 가난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우는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말씀이며, 부유한 사람들, 배부른 사람들, 웃는 사람들은 불행하다는 것이다. 현세의 최대보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얻고 누리고 차지하는 행복이 마치 길가에 잠시 피었다가 시들고 없어지는 꽃 한 송이가 주는 환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들린다.

아니다. 다만 지금은 비록 가난하고 굶주리고 서럽지만 닥쳐올 희망찬 미래가 있기에 복되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다스림이 있게 될 희망찬 미래에 대한 약속을 말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많은 시련과 아픔을 예수님께서 지셨듯이, 삶이 주는 여러 시련들을 은총의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부활을 희망하면서 살아가는 이는 행복하다. 또한 하느님 나라를 신뢰하며 그분께서 다스리는 때가 오면 오늘의 답답한 현실이 크나큰 행복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를 믿고 사는 것이 신앙이다.

오늘 제 1독서는 “주님을 신뢰하고 그의 신뢰를 주님께 두는 이는...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 제 뿌리를 시냇가에 뺀어 무더위가 닥쳐와도 두려움 없이 그 잎이 푸르고 가문 해에도 걱정 없이 줄곧 열매를 맺는다”(예레 17,7-8)하였다. 어떠한 불행이 감싸더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느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은 주님의 축

복과 은혜로움 속에서 행복할 것이다.

오늘은 병자들의 날이다.

난치병, 불치병 환자들이 많이 있다. 그들이 희망을 얘기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그리고 우리 주위의 병자들도 돌아보자. 아프면 마음도 약해지고 서럽다. 아픈 것에 온통 마음을 쏟고, 자신의 아픔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기에 사람들에게 서운한 감정도 갖는다. 오늘 그들을 방문하고 기도해 보자. 그들은 행복해 할 것이다.

숲머리 생각



살아있는 과거



최 용준 신부
뉴욕 S.I 본당 주임

“기록을 읽어 내려 가다가 대궐 수문장으로 있던 두 내시 빅탄과 테레스가 자기를 암살하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을 모르도카이가 고발했다는 대목에 이르러...” (에스 6,2)

세상은 변하고 사건들도 시시각각 지나간다. 하지만 삶이 시간 속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 해서 한 가지 뜻으로만 굳어지는 법도 없다. 보이는 것은 오늘이지만 과거의 일들



도 살아 숨쉬고 닥쳐올 미래도 머리를 내민다. 인간의 상념은 과거와 미래를 넘나들어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 묻혔던 뜻이 살아나고 굳어졌던 생각이 바뀌어진다. 때론 시간이 인간을 혼계하는 스승이 되기도 한다.

에스테르 왕후의 방문과 초대를 받은 왕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왕후의 행동에 무슨 사연이 있는 것만 같았다. 행여 지나친 일이 있을까봐 왕은 생각 끝에 궁중실록을 읽게 하였다. 그러다가 지나간 음모사건을 다시 접하게 되었다. 왕후를 통해서 온 모르도카이의 고발이 있었다. 사건은 바로 평정되었지만 모르도카이에게는 해 준 것이 없다. 자신의 목숨을 구한 은인이었지만 그 동안 잊고 있었다. 왕후의 고민이 이것이였을까?

지금 모르도카이의 상황은 아주 절망적이다. 그는 유대인이고 하만이 청했던 대로 민족

이 전멸될 위험에 처해있다. 충신을 자처하는 하만이 그의 목숨을 노렸기 때문이다. 왕은 무슨 비밀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하만을 시험하였다. “내가 상을 내리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무엇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가?” 하만이 대답하였다. “상을 내리시려는 사람에게 왕복을 입히시고 말을 태워 성내 광장을 돌게 하십시오.” 왕은 바보가 아니었다. 하만의 의중을 꿰뚫은 왕은 지시하였다. “그대가 한 말 그대로 시행하여라.”

과거의 행적이 사람의 품격을 보증한다. 지나간 사건은 그냥 묻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잊을 수 있어도 사건은 때가 되면 말을 하고 진실을 드러낸다. 잠 못 이루던 날의 시름은 과거의 진실로 인도했고 왕은 거기에서 참됨을 얻었다. 지나간 사건 속에서 들려오는 침묵의 소리는 하느님께서 이끄시는 진실의 소리이다. 과거를 보고 배우는 자는 현명하다. 침묵의 소리를 듣는 자는 행복하다. 과거는 살아있되 진실은 시간 속에 그렇게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행적이 사람의 품격을 보증한다. 지나간 사건은 그냥 묻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잊을 수 있어도 사건은 때가 되면 말을 하고 진실을 드러낸다. 잠 못 이루던 날의 시름은 과거의 진실로 인도했고 왕은 거기에서 참됨을 얻었다. 지나간 사건 속에서 들려오는 침묵의 소리는 하느님께서 이끄시는 진실의 소리이다. 과거를 보고 배우는 자는 현명하다. 침묵의 소리를 듣는 자는 행복하다. 과거는 살아있되 진실은 시간 속에 그렇게 있기 때문이다.

그림 : 박종구 (바드리시오)

도서선교(?) 노점상 할머니들(?)

고향 같은 전주, 예향에 15년 만에 다시 오게 되었다.

많이 발전하고 변한 모습 속에서도 바오로딸 서원 주변은 여전했는데 한가지 새로운 풍경은 바오로딸 서원앞이 마치 시장통을 방불케하는 노점상 할머니들의 장사진이었다. 할머니들은 서원유리문을 가리고 앉아 갖가지 야채와 잡곡들을 팔고 있는데, 우리 수녀님들은 서원 안에 있는 자판기에서 커피를 짬뽕에 드시게 해드리고 추운 날은 따뜻한 국물도 나눠드리면서 친하게 지내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노점상 단속을 하는 시간이라 서원 문 앞이 깨끗해진 시간에, 서원에 자주 오시는 목사님이 오토바이를 타고 오셨다. 목사님은 신간도 보시고 책을 찾아 한참을 읽곤 하시는데 바깥의 할머니가 문을 열고서 오토바이의 주인인듯한 목사님을 향해 장사 좀 하게 오토바이를 치워달라고 하는 것이었다. 목사님은 알았다고 하시며 얼른 일어나서 나가실

수밖에 없었다.

서원에 오신 손님을 바깥 노점상이 불러내어 나가시게 하더니……. 서원고객을



위하여 우리가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데…….

딱하고 착잡했지만 마음을 굳게 먹고 나가서 할머니들을 만나보았다. “할머니, 이제는 장사 좀 안 하시면 안되나요? 자녀들이 이렇게 장사하라고 가만 있나요?” 할머니는 한숨만 쉬고 옆에 있는 이가 대신 말해주었다. “아들이 용돈을 안 준대요.”

자식은 없고 장애인 시누이와 함께 산다는 서울 할머니도 딱하기는 마찬가지이다. “할머니들, 모두 딱하시니 당장은 아니라도 조금이라도 나아질때까지만 하세요. 그리고 우리 서점에 오시는 손님이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세울 수 있는 자리는 좀 비워놔야 하지 않겠어요? 서로 자리를 조금씩만 좁혀 앉으시면 안될까요?” “예 알겠어요. 그래야지요.” 뜻밖에도 순순한 대답을 듣게 되어 할머니들이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이제는 오토바이 세워둘 자리도 마련되고 서원유리문이 절반이라도 시원해져서 밖에서 서원안이 잘 들여다보이게 되었다.

“언제나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는 주님, 노점상 할머니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평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보살펴주소서.”

그림 황의성(세례자 요한)



박문희(고로나) 수녀
(성 바오로 딸 수도회)

입당송 시편 31(30),3-4 참조

주님, 이 몸 보호할 반석 되시고, 저를 구원할 성채 되소서. 주님은 저의 바위, 저의 성채이시니, 주님 이름 생각하시어 저를 이끌고 인도하소서.

제1독서 예레 17,5-8

회답송 시편 11-2,3,4와 6(◎ 40(39), 5-7)

◎ 주님께 신뢰를 두는 사람은 행복하여라.

제2독서 1코린 15,12,16-20

복음 환호송 루카 6,23-7-8

◎ 알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 알렐루야

복음 루카 6,17,20-26

영성체송 시편 78(77), 29-30 참조

그들은 실컷 먹고 배불렀으니, 주님께서 그들의 배를 채워 주셨음이다. 주님께서 그들의 배를 저버리지 않으셨도다.



● 새터민 69명 전주교구 신자집서 홈스테이



북한을 떠나 남한에서 생활 적응 훈련을 받고있는 새터민 69명이 지난 2월 1일(목) 오전 11시에 전주를 방문, 전동성당에서 1박 2일동안 홈스테이를 할 전주교구 신자 69명과 첫 만남을 가졌다. 전주교구 민족화해위원회(전담=박동진, 조민철 신부) 초청으로 전주를 찾은 새터민들이 두 대의 버스로 전동성당에 도착하자 문규현 신부를 비롯한 교구신부, 서동호 평협회장, 송하진 전주시장과 많은 신자들이 열렬히 환영했다. 새터민들이 상당안으로 들어서자 ‘반갑습니다’라는 노래와 울동으로 이들의 서먹서먹함을 떨치고 긴장을 풀어주며 함께 어우러지는 시간을 가졌다.

새터민들은 평화, 서일, 용머리, 우림성당 소속 신자들의 집에서 하루를 묵고 전주 전통 한옥마을 관광 등 일정을 함께 한 뒤 2일 오후 다시 전동성당에 모여 환송식을 마친 후 돌아갔다.

새터민들은 북핵 귀순자들의 정착지원을 돕기 위해 설치된 경기도 화성시의 하나원에서 진행되는 3개월간의 적응훈련을 받고있다. |홍보국 정례

후원 : 민족화해위원회(852-6949)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신태인 성당 청년회 겨울 산행

신태인 성당(주임=김봉술 신부) 청년회는 지난 2월 1일(목) 2007년 활동 계획에 의거하여 내장산 서래봉 겨울 산행을 했다. 2월의 첫 날을 눈쌓인 산에서 상쾌한 기분으로 시작한 이번 산행은 특히 본당신부, 수녀 그리고 신학생들과 청소년과 관계된 청소년분과장, 자

모회 어머니들이 함께 하여서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다. 눈이 많이 쌓여 오르기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젊음의 패기로 곳곳하게 정상을 정복하는 기쁨을 누렸다. 산행에 함께한 본당 신부는 “오늘의 어려운 등반을 계기로 힘을 얻어 앞으로의 청년회 활동에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선숙 기자

● 나운 2동 성당 청년회 겨울 피정



군산 나운 2동 성당(주임=이덕근 신부) 청년회는 지난 2월 3일(토) 저녁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본당에서 밤샘 겨울 피정을 가졌다. 청년들에게 자신을 돌아보고 하느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고자 마련한 이번 피정에는 22명의 본당 청년들과 봉사자 7명등 30여명이 참여하였다. ‘나를 따라 오너라(마태 4,19)’를 주제로 실시한 이번 피정은 시작미사, 폐제 영상기도, 말씀과 함께하는 주제 나눔, 영화 감상(그리스도의 수난), 세족례, 조별 나눔, 파견미사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휴대폰과 시계, MP3 등은 주최측에 반납하고 침묵으로 치러진 피정에서 전자 문화에 익숙한 청년들은 처음에는 당혹해 하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분주함에서 벗어나 자신을 성찰하는 진지함으로 변화되는 모습이였다.

본당에서 처음 실시된 밤샘 피정을 기획한 한주환 청년회장은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좋은 피정이 된 것 같다”고 말하였다. 파견미사에서 이덕근 주임신부는 “밤을 새우며 기도 한 시간이 훗날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이라며 “가끔 이런 기회를 갖고 스스로를 자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청년들에게 권고하였다. 한편 피정에 참여한 노시영(글라라,대학

17년 역사 수맥들침대

- 공장 직판 -

(임응승 신부님 수맥지도)

대표 : 이경복 바오로

전주 1588-5335

맛과 향이 뛰어난 (O.K) 장수사과원 분양

정원모(베드로) 이숙민(아네스)

장수 장계면 금덕리 24-5

문의 : 063-274-3635,

010-3905-3635

홍로단 일품종

茶(다례) 수강생 모집

생활차반 6개월, 생활다례, 전통다례, 풍류다례, 말차다례

모집기간 : 1월~2월

개강 : 3월

장소 : 루갈다원(한옥마을 내)

문의처 : 288-3494

정 루 갈 다

유* 사랑 외과

유방 전문 클리닉
유방암 검진

원장 소우 성(스타파노)

서신동 테마타운

☎(063)253-6075



1년)자매는 “하느님의 은총을 듬뿍 받았어요, 밤을 새웠는데도 전혀 졸리지 않고 기쁘거든요” 라고 이번 피정의 소감을 말하였다. |신현숙 기자

● **삼천동 성당 사목회 임원 연수**



삼천동 성당(주임=김병환 신부)은 지난 2월 2일(금) 오후 5시부터 밤 12시까지 해월리 피정의 집에서 사목회 임원 연수를 하였다. 처음 순서로 주임신부의 2007년도 교구장 사목지침 설명이 있는 다음 본당 사목지침 설명이 있었다. 다음으로 분과별 사업계획을 발표·토의하고, 바자회 계획, 친교미사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본당 사목지침으로는 올해를 ‘가족찾기의 해’로 정하고 3월까지 각 분과별로 모든 준비를 마치고 4월부터 실천에 옮기기로 했다. |서송원 기자

● **만경 성당 예비신자 환영식**

만경 성당(주임=백수현 신부)은 입춘이자 주일인 지난 2월 4일(주일) 교중미사중에 예비신자 환영식을 가졌다. 앞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실천함으로써 주님의 자녀로서 신앙인답게 살아갈 것을 다짐한 예비신자들에게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이어서 벌어진 다과회에서 예비신자들은 6개월 동안 교리를 배우고 익혀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최진순 기자

● **가톨릭 미술가회에서 작품 26점 기증**

지난 5일(월) 가톨릭 미술가회(지도=현유복 신부)는 정기모임을 갖고 교구에서 위탁 운영하는 무주 청소년

수련관(관장=김병희 신부)에 미술품(서예, 한국화, 서양화, 사진) 총 26점을 기증했다. 문화 소외지역 청소년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을 주고자 시행한 사업으로 회원 대다수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 **가정교리교사 초급연수**



부모가 함께 하는 첫 영성체 가정교리교사 양성을 위한 가정교리교사 초급연수가 지난 2월 5일(월)부터 이틀간 가정사목부(전담=김정민 신부)주관으로 가톨릭 센터에서 열렸다. 가족관계의 개선과 가정의 복음화를 목적으로 하는 가정교리는 자녀신앙교육의 일차 책임자인 부모가 첫 영성체를 준비하는 자녀의 가정교리교사 역할을 맡아 대화형식으로 풀어나가는 1년 과정 첫 영성체 교리교육 프로그램이다. 강의를 맡은 한미란(사비나) 수녀는 “가정교리를 통해 복음화 된 부모가 자녀를 복음화 시키는 과정을 통해 하느님이 주신 가정의 본 모습을 살리게 된다”고 가정교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연수는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리’를 주제로 가정교리방법론과 교리교안을 중심으로 한 분반강의 그리고 대화법을 내용으로 이루어졌고 가정교리 교사들은 모든 가정이 새로운 복음화를 이루도록 힘과 용기를 주는 중대한 사명을 맡았음을 인식했다. 김정민 신부는 “가정교리는 가정의 부활과 가족관계의 새로운 정착에 중점을 두고 가정성화를 도와주는 교육이라”며 “가정과 세상의 복음화를 원하시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확신을 갖고 가정교리에 임해 달라”고 교사들을 격려했다. |오안라 기자

<p>대성항문병 전문병원 장문외과 치질·변비·유방클리닉 전문 최성양(루가) 전문 안해선(사도요한) 전문 이철중 www.jangmun.com 대표전화☎(063)834-6000 익산 영등동 육교 밑</p>	<p>젬인아트 전진아 (실비아) 부부국가자격보석감정사 미국보석학회GIA 감정사 ☎(063)462-7777 / 018-648-7777</p>	<p>대학병원 처방 전문 대학종로약국 약사 정귀진(요셉) 배석환(엘리아) 한종욱(크리스티나) 전북대학병원 제2주차장 앞 ☎(063)274-5425, FAX274-5424</p>	<p>제8회 PBC 창작 생활성가제 공모 기간 : 2월 12일(월)~28일(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악보(8부), 참가곡CD(Tape), 사진(1장) 본선 : 5월 12일(토) 동성고등학교 대강당 주최 : 평화방송·평화신문 서울대학교 청소년국 청년부 문의 : 02-2270-2326, www.pbc.co.kr www.2030.or.kr 참조</p>
---	--	---	--

치명자산의

4월에는 새로운 전주교구청이 치명자산 기슭에 완공되면서 어느 때보다도 천주교 신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새 교구청이 들어선다는 것은 전주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의 종교지형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일종의 선교 센터(성지, 성당, 교구청 및 기타 시설)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정작 새 교구청이 세워지는 장소에 대한 다양한 의미를 이끌어내려는 시도는 거의 없었다. 그렇다면 새 교구청이 세워지는 치명자산의 장소적 의미는 무엇인가?

‘숲정이’는 ‘치명자산의 장소성’과 ‘전주의 새로운 랜드마크, 전주교구청’을 조명하는 글을 지리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최진성(미카엘·솔내 본당·삼례공교 교사)형제의 기고로 신는다.



그림 1. 승암산 일대의 종교경관

(주: 승암산에서 이어지는 발리산 줄기를 따라 형성된 종교경관들을 나타냈으며, 전주성터는 외성을 제외한 성곽 내성의 일부만 표시함)

치명자산은 해발고도 약 306m 정도의 바위산으로, 과거에는 전주읍성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 가운데 가장 높고 웅장하며, 특히 정상 부근은 규암 성분의 바위들이 여기저기 노출되어 멀리서도 잘 보인다. 이 산으로부터 기린봉(麒麟峰, 260m)과 발산(鉢山)이 산세를 이루는데, 기린봉은 전주팔경의 하나였고 발산에는 조선왕조의 발상지를 상징하는 오목대(梧木臺)와 이목대(梨木臺)가 위치하고 있다.

치명자산 일대가 역사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던 것은 후백제시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견훤에 의해 무진주(光州)에서 전주로 후백제의 도읍지가 천도(遷都)된 다음에 도성을 쌓은 곳이 바로 치명자산 일대로 현재도 발굴이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로 미루어 치명자산 일대는 후백제의 왕궁인 전주성이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견훤은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하려던 거점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주성에 연꽃무늬의 와당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종교와 정치가 합쳐져 불도국가를 이루려던 이상향으로서의 기능도 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주성의 거점이었던 치명자산 일대는 신라의 경주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통일국가를 달성하려던 본거지이자 이상향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고려시대의 치명자산 일대에는 불교 사찰들이 많이 분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치명자산의

장소성

이전 지명인 ‘승암산(중바우)’은 불교와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승암산’이라는 지명은 이 산의 정상에 있는 바위들의 모습이 마치 스님들이 염불을 하는 모양을 닮았다 하여 생긴 이름에서 유래하였다. 당시에 불교 신자들의 눈에 승암산의 회백색 규암 바위들이 스님들의 모습으로 보였다는 것은 이들에게 승암산이 일종의 불교적 상징물로 해석되었음을 말해준다. 당시에 승암산은 불자들에게는 일종의 룸비니 동산을 연상케 하였던 불교의 성지였다.



그림 2. 고지도의 치명자산

(주: 원 안의 유생들은 봉닐에 오목대에 올라 음성을 바라보며 시연회를 하는 것으로 보이며, 경기전의 숲에는 백로들의 모습을 그림으로써 성역을 상징하였음. 자료: 『全州地圖』, 국립 전주박물관 소장, 19세기 후반으로 추정)

또한 오목대는 이목대와 연결된 구릉으로 일종의 돈대(墩臺)라고 할 수 있다. 1380년(고려 우왕 6년)에 이성계가 전라도 운봉 전투에서 뛰어난 활솜씨로 왜적의 장수를 죽이고 돌아오는 길에 전주에 들러 일가들을 만나 축연을 벌였다는 일화 역시 전해지고 있다. 1900년에 고종은 이목대와 마찬가지로 「太祖高皇帝駐蹕遺址」라고 새겨진 비석을 세워 전주의 왕조 발상지로서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경기전과 전주향교 역시 치명자산 일대에 조성된 대표적인 유교경관들이었다. 특히, 전주부를 그린 고지도에서는 경기전의 숲에 백로를 그려 넣어 성역임을 강조하였다(그림 2 참고).

치명자산은 후백제시대에는 도성이 세워진 장소였으며, 고려시대에는 불교의 성지였고, 조선시대에는 유교적 성지로 탈바꿈하면서 그 장소성이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에는 치명자산의 이러한 장소성을 계승한 천주교가 어떤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 선교의 중심지로 만들어갔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호로 계속〉



아픈 이들에게서 예수님을 만나다.

- 2006년 개인선교대상 수상자 박태규 시몬형제 -

오전에 병원에 도착하시면 병실을 방문하십니다. 병실 하나하나 꼼꼼히 돌며 안부를 전하고 기도로 위로를 전한다. 점심을 먹고 한숨 돌리고 나면, 이제는 오전에 병실을 돌며 체크해 두었던 분들, 도움이 손길이 필요하신 분들을 찾아가 스트레칭과 지압을 해드립니다. 물론 대화를 통해 아픈 사람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일주일에 한번, 한달에 한번이 아닙니다. 이 일을 매일매일 하십니다. 참 대단하다 싶었다. 그리고 뭔가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았다. 그래서 살짝 여쭙어 보았다. 특별한 계기는 없으시단다. 그저 세례를 받으신 후 우연히 가정에서 투병중인 환자를 돌보게 되었는데 그 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하던 일 익숙한 일을 하자 하는 마음으로 병원 봉사를 시작하셨고, 수녀님을 만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호스피스 봉사를 시작하셨단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듯이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마태 25,35-36) 의인들은 자기네들이 언제 그렇게 했느냐고 예수님께 묻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가장 작은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해 준 것이라고 알려주신다.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환자들을 찾고 스트레칭과 지압을 통해, 또 기도와 대화를 통해 환자들에게 다가가는 시몬 형제님은 바로 이 마음으로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다. 환자로 계시는, 환자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환자는 이미 예수님일 것이다.

그리고 환자분도 조금씩 조금씩 그 예수님 마음으로 물들어 가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인가? 남원 의료원 가톨릭 원목실을 통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대세를 받으시는 분이 한달이면 5-6명이나 되신다고 한다.

시몬형제님은 혼자서 한일도 아니었는데 선교상을 받게 되어 쑥스럽다고 하신다. 그러나 어깨가 더 무거워 진만큼, 그리고 주님께서 더 열심히 하라고 하시는 뜻으로 받아들여 건강이 허락하시는 한, 이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가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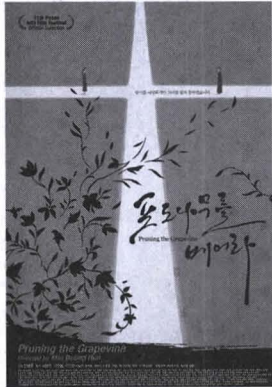
시몬형제님이 봉사하시는 남원 의료원 가톨릭 원목실은 두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또 하나의 이름은 남원 의료원 인보 호스피스 봉사센터이다. 담당하고 계시는 정진숙 헬레나 수녀님은 더불어 사는 시대에 조금만 생각을 바꾸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정의 지원을 받는 봉사센터를 하나 더 만드셨단다. 병원에서는 병동봉사를 통해서 또 가정집에서 투병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집으로 찾아가는 재가 봉사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환자들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돌보고 있다. 가톨릭이라는 울타리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한걸음 더 지역 사회 안으로 들어가 활동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남원의료원 원목실의 자랑이라고 하신다. 이제 시몬 형제님처럼 아픈 이들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봉사자들이 늘어나고, 그 분들이 굶주린 예수님, 목마른 예수님, 고통 받고 갇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느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취재 : 김동욱(세실리아)]

갈등과 두려움 속, 성직자의 길 포기하려는

학 신학생이 성소를 찾는 과정 작작하게 그려...



영화 <포도나무를 베어라>는 <별이 날다>, <괜찮아 울지마>로 이탈리아 ‘토리노 국제 영화제’, 그리스 ‘테살로니카 국제 영화제’ 등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세계 영화계로부터 크게 주목을 받아온 민병훈(바오로) 감독의 세번째 작품이다.

“가톨릭적 소재를 바탕으로 구원을 찾는 과정을 담고 싶다”는 민감독은 신학생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 <포도나무를 베어라(Pruning the Grapevine)>를 통해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신에 대한 불신, 용서와 화해, 그리고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여자 친구를 버린 죄책감을 품고 있는 신학생 수현은 깊어가는 갈등과 두려움으로 성직자의 길을 포기하려 한다. 그러나 피정 중 여자친구를 닮은 헬레나 수녀를 만나면서 자신의 상처를 베어내고 성소를 찾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갈등하는 등장인물들에게 하느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두려움에 직면하게 하는 것입니

다. 두려움에 직면해 자기 스스로 내면을 들여다보고 스스로 결심하도록 이끄시는 것이지요.”라고 말하는 민감독은 ‘사람이니까’라는 핑계로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현실만을 탓하며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는 현대인들의 모순을 수면으로 끌어올린다. 또한 종교영화라는 선입견이 부담스럽지 않냐는 질문에 그는 “이 영화는 종교영화가 맞다”라고 말하면서 “지금까지의 한국 영화에서는 종교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종교를 도구로써 이용만 한 작품이 대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에서는 가톨릭적 소재를 바탕으로 개개인이 내면의 소리에 귀기울여 진정한 구원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영화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독이 될 수도 있지만, 활용하기에 따라서 가장 탁월한 선교매체가 될 수도 있다. 현대가 영상에 의지하는 시대적 기류에서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시각화시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매체로서 영화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사유의 깊이나 정신의 정화작용을 끌어내는 데 있어서도 영화는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포도나무를 베어라’는 기존 영화와는 달리 예술영화 전용관이 아닌 일반 개봉관에서 상영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작 가톨릭교회와 신자들은 영화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아 안타까운 형편이다. 특별시사회 이후 개신교측에서는 자발적으로 토론회와 시사회 등도 마련하고 있다. 오는 2월 22일 정식 개봉되는 이 영화는 전주 프리미어 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 「가톨릭신문」, 안내문 발췌 요약

- 개봉일 : 2월 22일
- 상영관 : 프리미어스
- 자세한 내용 : 교구 홈페이지 참조



교구장 일정

- 신학교 교수·주교 연수, 피정 2월 12일(월)~13일(화)
- 해성학원 이사회 2월 14일(수)
- 이주사목 교구 대표사제 모임 2월 15일(목)

미사·행사·모임

- 가정성화 미사 2월 12일(월) 오전 11시 치명자산 성당
- M.B.W. 콘벤치라 2월 12일(월) 오후 7시
- 교구 사회복지위원회 사랑의 다리 군산 월레미사 2월 12일(월) 오전 10시 30분 나운동
- 익산 하나회 미사 2월 18일(주일) 오후 2시 부송동
- 가르멜 재속회 2월 19일(월) 오전 10시 30분 용머리
- M. E. 모임 2월 23일(금)~25일(주일) 천호피정의 집
-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2월 22일(목) 오전 10시 덕진
- 치명자산 사순절 미사 새벽 5시 30분: 용기가마(주차장) 오전 11시: 산상 성당
- 사제 아버지회 월레모임 2월 15일(목) 초남이 성지
- 금상동 성당 첫미사 2월 18일(주일) 설날 오전 11시

교육·피정·연수

- 신학교 신입생 피정 2월 13일(화)~14일(수) 해월리 피정의집
- 새사제 연수 2월 15일(목) 오전 10시 센터

새 가톨릭센터 특별 신축현금
(1/28~2/3)
김나연 1,500,000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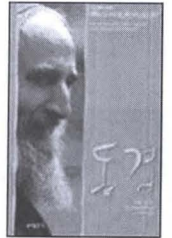
- 전북대 평생교육원 전례꽃꽂이 수강신청 2월 21일(수)까지 등록 문의: 288-0022
- 쌍백합 가족이 되어 주십시오 '쌍백합'은 교구 안에서 형제 자매와 신앙과 삶의 이야기를 엮어가는 계간지입니다. 정기구독과 후원으로 '쌍백합'의 가족이 되어 주십시오. 후원 계좌 전북은행 505-13-0313012 천주교 유지재단
- 교구에서는 금상동(구 소리개재, 천주교 묘지)에 상당신축, 납골시설을 갖추었습니다. 교우분들 우선보양(자생 1,2층)하고 있으니 서둘러 신청바랍니다. 천주교 공동묘지에 모셔진 분들도 납골당 사용계약을 하셔야만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납골시설요금: 160~200만원(개인실) 300만원~380만원(부부실) 금상동 성당: 245-0091, 245-6446
- 교구 장애인복지협의회 자원봉사자 모집 첫째 주일(군산 나운동) 수화봉사 둘째 주일(전주 삼천동) 수화봉사 셋째 주일(익산 부송동) 반주, 미용봉사 봉사시간: 오후 1시~4시 문의: 임한복 회장(011-672-6509) 양석현 신부(011-681-0610)
- 은빛성가대(가칭) 창단에 따른 단원모집 성가대로 활동할 어르신들을 초대합니다. 대상자: 60세 이상 남, 녀 어르신 (예비신자 가능) 신청서 배부처: 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 (284-5290) 신청서 마감일: 2월 28일(수) 연습일: 매주 목요일 오후 2시~4시 오디션: 3월 2일 오후 2시 가톨릭센터 별관 1층 회의실

2월-좋은 영화-유혹의 선

일 시: 2월 14일(수) 오후 2시 센터 3층
상영시간: 114분 / 관람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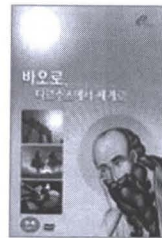
다섯명의 의대생들이 죽음의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는"을 통해 겪게 되는 삶과 죽음, 속죄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문화의 향기



※ 동경 안셀름그린 / 분도 / 10,000원

그의 다른 책들이 그러하듯이 이 책 또한 짙막한 묵상의 글을 통해 자신 안으로 침잠하여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든다. 위를 보기보다는 아래, 즉 자신을 '있는 그대로' 먼저 보도록 권하는게 그의 독특한 '영성 안내'다. 늘 자신을 인정해야 한다고, 나 자신을 단죄하거나 평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살아갈 힘을 얻는다고 그린 신부는 말한다.



※ 바오로, 타르 수스에서 세기로 DMD

감독:알베르토 카스텔라니 / 바오로딸 / 30,000원

디지털 기술로 제작된 작품으로 7회 분으로 만들어진 총 210분짜. 깊이 있는 감수성으로 그리스도교 초창기 인물들의 생애를 착실하게 기록하는 것으로 유명한 알베르토 카스텔라니 감독의 '위대한 작품', 말할 나위 없는 역사적 가치를 지닌 최상급 다큐멘터리 영화 시리즈가 탄생한다. 이 작품을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복음을 전한 바오로 사도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한다.

서울 성가스비녀회 성소모임

일시: 셋째주일 오후 3시
장소: 효자동 성당 수녀원
문의: 063-223-3822

인보성체 수녀회 성소모임

주제: 참 좋은 묵을 택했다
일시: 2월 25일(주일) 12시~오후 5시
장소: 노송동 본원 (매월 넷째주일 모임 있습니다)
문의: 011-380-5159

살레시오수도회 돈보스코 직업훈련생 모집

대상: 만15~29세 남자, 중졸위 이상
부문: 1년과정 / 선반과 30명, 기계조립과 30명
교육: 기계가공, CAD/CAM, 자동화기계, 인성교육
특징: 교육비 및 기숙사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고검반운영, 방통고 편입학지도, 취업알선
기간: 2007.2.22까지 수시접수, 면접전형
문의: 노동부지정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02-833-4010

천주교 제주교구 운전기사 사도회

형제적 사랑으로 제주관광 및 성지를 정성껏 안내하고 있습니다. 문의해주시면 많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차량·호텔 예약 문의 ☎(064)758-6476 H·P 011-697-6476

임순남 · 무진장 지구 본당 소식

도통동

주임신부: 625-0091 사무실: 631-0091 주임신부: 김희태
F A X: 633-0081 수녀원: 635-0091 서목회장: 김기창

- ◎ 연합동위령미사 봉헌: 사무실 접수
- ◎ 설 차례상 후원받습니다.(꽃감, 밤, 배, 사과, 떡, 전, 돔, 조기, 술, 편육)
- ◎ 사순시기 실천표, 묵상집 "평화의 사순", 사순시기 회생봉헌봉투 배부
- 1. 오늘 ① 첫영성체식: 축하합니다. ② 성모회
- 2. 설 연휴미사 안내: 17일(토) 어린이미사는 없음. 특전미사 후6시, 교중미사 10:30 (연도책준비) 저녁미사 후 7시
- 3. 재의 수요일: 21일(수) 후 7:30분, 앞으로 저녁미사는 7:30분으로 고정합니다.
- 4. 감사헌금: 익명 18만, 익명 10만, 박남기 10만
- 5. 기증감사: 김순남 주목 1그루, 신상우 사다리 2조
- 6. 제2차 성전신축을 위한 목주기도 100만단 바치기: 1,146,473단
- 7. 성전신축헌금: 최희숙 100만, 익명 50만
- 지난주 봉헌금: 1,098,500원 ■ 교무금: 2,330,000원

무주

주임신부: 322-2308 사무실: 324-0555 주임신부: 이상용
유지원: 324-3555 수녀원: 322-2399 서목회장: 김원태

- ◎ 성서읽기: 2월 첫째주간 시편142장~150장
- ◎ 주일날!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눕시다
- ◎ 대성당 성가 전자번호판 기증 은인을 구합니다
- ◎ 성지가지 성당으로 가져오세요-사무실
- ◎ 설 합동 위령미사 접수합니다-사무실
- ◎ 공소미사 - 설천공소 ◎ 성당청소: 2월16일(금) - 윤교,죽산반
- 1. 모임: 율뜨레아 - 교중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682,000원 ■ 교무금: 1,242,000원

순창

주임신부: 653-1004 사무실: 652-1004 주임신부: 송호석
F A X: 653-0414 수녀원: 653-3135 서목회장: 정윤열
홈페이지: http://cafe.naver.com/6521004

- ◎ 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납부에 관심을 가집니다.
- 1. 설 합동위령미사: 사무실에 접수 하세요
- 2. 설 연휴 미사 안내
 - ① 17일(토)-후4시 어린이 미사, 후7시 중교 및 특전미사
 - ② 18일(주일)-전7시30분 복흥공소, 전10시 본당미사(저녁 동계미사 없음)
 - ③ 19일(월)-전6시 본당미사
- 3. 예비자교리 3월부터: 주일반-주일 오전9시, 목요일반-저녁미사 후
- 4. 감사헌금: 김경희
- 지난주 봉헌금: 935,800원 ■ 교무금: 1,558,000원

쌍교동

주임신부: 633-1004 사무실: 633-4004 주임신부: 박성필
유지원: 633-4005 수녀원: 626-1004 서목회장: 양장석
홈페이지: http://www.ssangkyo.org

- ◎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루카 6,20)
- ◎ 2006년도 교무금을 완납하시고, 2007년도 교무금을 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선교의 해 - 성경완독, 신앙서적 읽기운동에 적극 참여바람
- ◎ 김마리아 수녀님 송별식: 11일(일) 교중미사 중, 본당을 위해 수고하신 김 수녀님의 영육 간 건강을 위하여 기도바랍니다.
- 1. 예비자 교리: 매주 화요일 저녁미사 후 - 신부님반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 수녀님반, 많은 인도바랍니다.
- 2. 설 합동위령미사: 2월 18일(일) - 부모님과 조상님들을 위하여
- 3. 재의 수요일: 21일(수), 성지가지 사무실로 가져오십시오.
- 4. 가톨릭센터 신축헌금 총 신입액: 159,564,000원
납입액-117,086,000원
- 5. 감사헌금: 예루살렘회 100만, 박종철 10만, 정순옥 5만, 임춘자 50만
오길녀 100만, 박용수 30만, 최항미 10만, 정세윤 10만, 정민자 20만
- 지난주 봉헌금: 2,035,100원 ■ 교무금: 3,068,000원

진안

주임신부: 433-0750 사무실: 433-2541 주임신부: 정식수
F A X: 433-7599 수녀원: 433-1531 서목회장: 구동수
연동공소: 433-3177 유지원: 433-2293

- ◎ 임 아녜스 수녀님 환영합니다. 환영식- 교중미사 중
- 1. 금주 ① 오늘 미사 후-이명서 베드로회
 - ② 13일(화) 10:30 공소회장단모임
 - ③ 14일(수) 유치원 졸업미사(10시), 공소소공동체모임
 - ④ 공소미사 황금(전10시), 수향(후5시). 본당미사는 없음.
- 2. 차주 ① 설날미사 안내: 새벽미사 없음,
한들- 전 10시(이득재 신부님), 본당 10:30, 부귀- 후 4시
② 이웃돕기 2차헌금 - 사랑 짓는 요십이 후원

※ 공문을 통해 알려드린 바와같이 개인, 단체 공지에 관한 사항은 편집과정에서 삭제 되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오수

주임신부: 644-9386 사무실: 642-6319 주임신부: 서광석
F A X: 642-6319 서목회장: 변홍섭

- 1. 본당발전과 선교활성화를 위한 목주기도 누계: 196,434단
- 2. 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모금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 3. 성서를 통독 합니다.
- 4. 미납된 교무금을 봉헌해주시고 2007년 교무금을 신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5. 위령미사예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설(구정) 합동 미사 시간은 오전 10시 30분입니다.
- 6. 금주전례: 해설 - 문정희, 독서 - 김진태, 박춘향
- 7. 차량봉사: 이기을형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 8. 차주전례: 해설 - 문판이, 독서 - 박태규, 김양래
- 9. 차량봉사: 김진태형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임실

주임신부: 643-3661 사무실: 642-2164 주임신부: 박종홍
F A X: 642-2164 수녀원: 643-3660 서목회장: 노재진

- 1. 설 합동위령미사(차주): 관촌-전,8시30분, 본당-10시30분, 삼길-후,3시
- 2. 2007년도 성서쓰기(호세아~말라기)에 적극적인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 3. 설 합동위령미사 예물을 접수합니다. 사무실
- 4. 성지가지 수거합니다: 18일까지(사무실)
- 5. 은인을 구합니다(사무실 비품, 소성당 성물): 계시관 참조
- 6. 본당설립 50주년 기금: 노재진-200만원, 이창호-300만원,
윤선자-10만원, 양다복-10만원, 바오로회-5만원 ※ 누계: 60,444,131원
- 7. 감사헌금: 첫영성체자(6명) 및 유아세례자(1명)-14만원
조진규-3만원, 박영순-10만원, 박병연-5만원
- 8. 구역모임 ① 14일(수)-임1,3,6 ② 15일(목)-임2,5 ③ 16일(금)-임4
- 9. 청소 담당구역 ① 오늘-신명 ② 16일(금)-임실1,6 ③ 18일(일)-청용
- 10. 차주전례: 해설-이원섭, 독서-신태근, 이창호, 봉헌-임옥주 부부
- 지난주 봉헌금: 842,000원 ■ 교무금: 2,094,000원
- 2차헌금: 259,700원

장계

주임신부: 353-0610 사무실: 351-0111 주임신부: 임기봉
F A X: 351-0605 수녀원: 353-0611 서목회장: 이상화

- ◎ 주일성경과함께 미사에 항상 성경책을 갖고 참여합니다
- 1. 사목회임원, 심신단체임원 연수
 - ① 주제: 에니아그램(내적역정)
 - ② 일시: 2월25일(주일) 오후 1시-저녁 10시
 - ③ 장소: 교육관 ④ 지도: 박정자 수녀님 ⑤ 참가비: 3,000원
- 2. 구정 합동 위령미사: 2월18일 오전10시
※ 미사예물 접수-사무실
- 3. 성서 통독반 모임: 매주 수요일 저녁8시
- 4. 성지 가지 가져오세요(11일까지사무실에)
- 지난주 봉헌금: 711,600원 ■ 교무금: 1,015,000원

장수

주임신부: 351-8888 사무실: 351-2264 주임신부: 정건봉
F A X: 351-5226 수녀원: 351-1228 서목회장: 박동표

- ◎ 오늘미사는 구정(설) 합동위령미사로 봉헌합니다.
- ◎ 재의수요일 미사 - 21일(수) 후7시30분 ※ 금육, 금식
- ◎ 축하합니다. - 신학교 입학하는 하성훈(요셉)
- ◎ 주일학교 개학 - 24일(토) 후4시
- 1. 금주모임: 요셉 청년회 23일(금) 후8시
- 2. 금주참여공소: 수분, 차주-상, 하동
- 3. 금주공소미사: 상동, 차주-번암
- 4. 금주전례: 박덕순, 차주-김원순
- 5. 금주독서: 박동표, 이행순 6. 차주독서: 이범순, 강순이
- 7. 금주봉헌: 이승하, 이옥주 8. 차주봉헌: 이기준, 박연실
- 9. 차량봉사: 금주-김철수, 차주-정용석

- 3. 설 합동 미사예물과 성지가지, 어려운 이웃 명단은 사무실에 오늘까지
- 4. 만나회(자모회)는 연휴관계로 24일(토)로 연기합니다.
- 5. 25일(일) 상경예식 교육 관계로 예비신자 환영식은 3월 4일(일)에 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1,091,000원 ■ 교무금: 1,370,000원



교구민들의 사랑과 정성으로 이루어 가는(-ing) 새 교구청사

새 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모금 현황

(2007년 2월 5일 현재)

- 새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배정액 100% 납부한 본당 : 줄포선교, 문정, 상삼례, 황등, 삼례, 장계, 옥봉, 만경, 둔율동, 진안, 소양, 영등소라
- 신축기금 배정액 90% 이상 납부한 본당 : 고창, 금암동
- 신축기금 배정액 80% 이상 납부한 본당 : 우아동, 팔복, 장수, 신흥, 용안, 중앙, 신태인, 오룡동, 쌍교동, 나바위, 순창, 고산, 나운동, 나운2동
- 신축기금 배정액 70% 이상 납부한 본당 : 임실, 인후동, 오수, 여산, 소룡동, 봉동, 월명동, 신동, 덕진, 서신동, 숲정이, 금마, 복자, 우전, 시기동, 팔마, 영등동, 우림, 조촌동, 원평, 대야, 솔내
- 신축기금 배정액 60% 이상 납부한 본당 : 서학동, 무주, 노송동, 함열, 수류, 대야, 솔내, 송천동, 효자동, 삼천동, 연지동, 주현동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납 부 액	비 율
본 당	15,000,000	9,765,409	65.10%
사 제 단	1,000,000	1,211,624	121.16%
개인및 타지역(특별헌금)	1,500,000	631,375	42.09%
수 익 사 업	500,000	232,824	46.56%
합 계	18,000,000	11,841,232	65.78%

